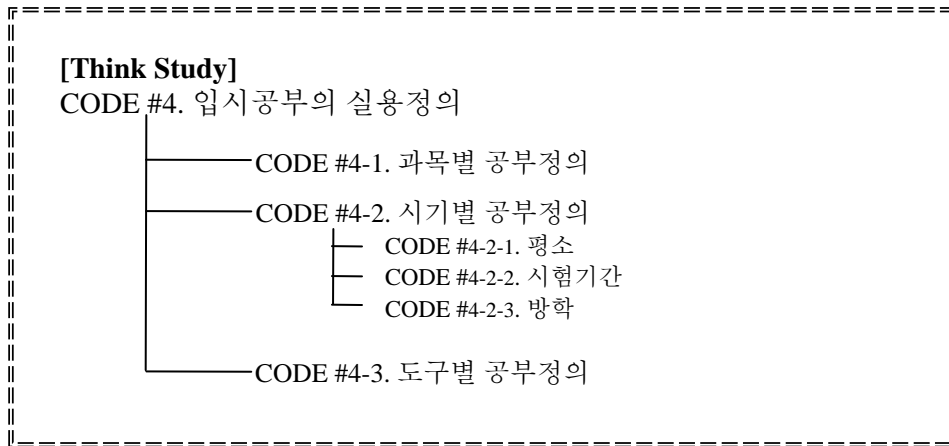


[Think Study 4(입시공부의 실용정의)] _ CODE



4.2. 시기별 공부정의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평소, 중간.기말고사 기간, 방학에 따라 다른 공부패턴을 보인다. 평소에는 새로운 내용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도에 맞춰 기반학습을 해야 한다. 시험기간이 되면 진도 나가기를 멈추고 시험 범위에 집중해야 한다. 방학이 시작되면 지난 학기 혹은 지난 1년 동안 배운 내용을 복습하여 빈틈 없이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nk Study] CODE #4.에서는 평소, 시험기간, 방학 각 시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의하고 그에 대해 상세하게 다룬다.

[Think Study]

CODE #4-2. 시기별 공부정의

『 시기별 공부정의』

– 기반학습과 시험학습의 시기별 적용 개괄』

- 평소 : 기반학습의 시기
- 시험기간 : 시험학습의 시기
- 방학 : 기반학습 보완의 시기

[Think Study 4(입시공부의 실용정의)] _ CODE

4.2.1. 평소

평소 공부는 ‘학교공부’와 ‘나만의 공부’ 두 가지로 나뉜다. 학교 공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따라서 학교 수업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간 활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평소 공부 중 하나인 ‘나만의 공부’는 학교 공부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거나 학교 공부 자체를 보충하는 시간이다. 평소 공부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공부’와 ‘나만의 공부’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Think Study]

CODE #4-2-1. 평소

『평소는 기반학습의 시기이다.』

- **학교공부** : 예-수-복 Cycle
예습 : 수업집중도 극대화를 위한 ‘지적 Shock’ 준비
수업 : 기반학습 50% 보조, 최우선/최대 활용
복습 : 기반학습 100% 완성, 수업 내용을 나의 스키마/근육과 연결
- **나만의 공부** : 학교공부 보충 + 학교공부 부족분

1) 학교공부

<1> 수업

학교 공부의 중추는 “수업”이다. 그만큼 학교 공부에서는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커다란 문제가 있다. 수능 시험 범위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수단은 학교 수업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교 수업보다 질 좋은 수업을 인터넷 강의나 과외, 학원 등을 통해 충분히 수강 가능하다. 단순히 수업을 듣기만 하는 문제라면 학교 수업, 인터넷 강의, 과외, 학원 중에서 가장 질 좋은 수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이라는 제약조건을 생각한다면 학교 수업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이다.

학교 수업은 필수 시간이기 때문에 학생 임의로 조절할 수 없다. 쉽게 말해, ‘난 학교에서 하는 수학 수업은 안 들을래.’라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루에 5~6시간 동안은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인터넷 강의나 과외, 학원 등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정해놓은 5~6시간 외에 따로 시간 마련해야 한다. 평균적으로 고등학생들이 확보할 수 있는 약 3시간의 Self Study 시간도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5~6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는 것이 실로 위험하다.

학교 수업은 시간이라는 절대 절명의 요소 때문에라도 최우선으로 사수해야 할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Think Study 4(입시공부의 실용정의)] _ CODE

<2> 예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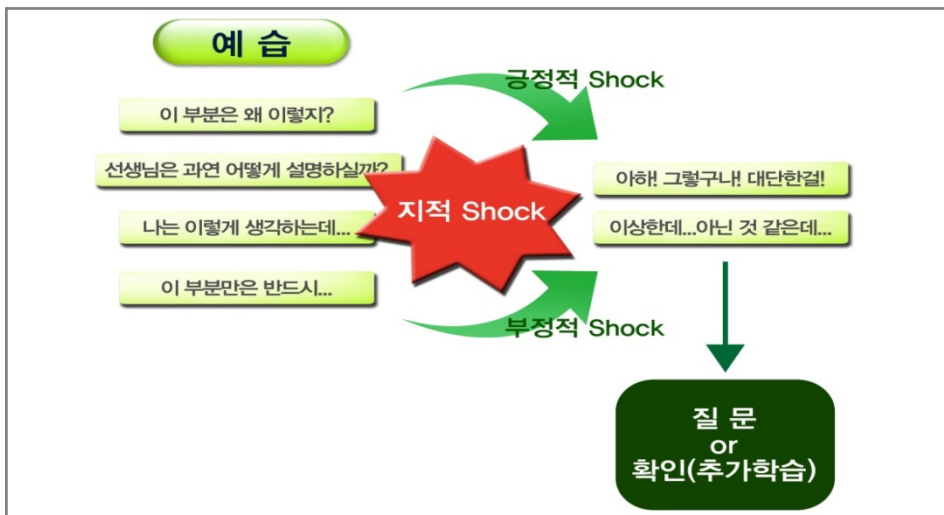
① 예습의 효과 - 지적 Shock

‘학교공부’에는 예습-수업-복습 Cycle이 적용된다. 이 중 예습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주고 공부의 리듬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예습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수업 시간의 집중도를 극대화 시킨다는 것이다. 예습은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몇 몇의 의문거리를 만들어 놓는 시간이다. 미리 수업 내용에 대해 의문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으며, 머리 속에서는 끊임없이 ‘아하~ 그렇구나!’ 또는 ‘이상한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데....’ 등 Shock가 발생하여 자연스럽게 수업 집중도가 올라가게 된다.

수업 시간에 서울대생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형상화한 것이 아래의 참고자료이다. 서울대 3121명은 예습 시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의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적 Shock를 경험하였으며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데..’라는 부정적 Shock가 발생하면 질문이나 추가 학습을 통해 부정적 Shock를 제거하였다.

[참고자료 _ 예습을 통한 수업의 ‘지적 Shock’]



② 과목별 예습 Point

‘수학, 사회, 과학’ 과 ‘언어, 외국어’는 예습할 때의 포인트가 다르다. ‘수/과/사’의 경우 가장 먼저 공부지도, 목차, 단원목표를 확인해야 한다. 각 과목의 특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그날 배울 내용의 학습 목표를 확인함으로써 수업 시간에 자신이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 놓기 위함이다. 공부지도, 학습목표 확인과 함께 해야 할 일은 교과서에서 그날 배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는 것이다. 이 때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이해’를 한 번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수업시간 또는 수업 후 복습을 통해 ‘이해’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습 시간에는 이해를 시도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에 대해 의문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수업 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언/외’의 경우에도 각 과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공부지도를 확인해야 한다. 그 후 수업 시간에 다룰 지문을 미리 독해/해석해 봐야 한다. 예습할 때에는 지문에 대한 독해/해석을 시도해 보는 정도면 충분하다. 완벽하게 독해/해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의문거리를 만들어 보는 것으로 예습을 완료하게 된다.

[Think Study 4(입시공부의 실용정의)] _ CODE

<3> 복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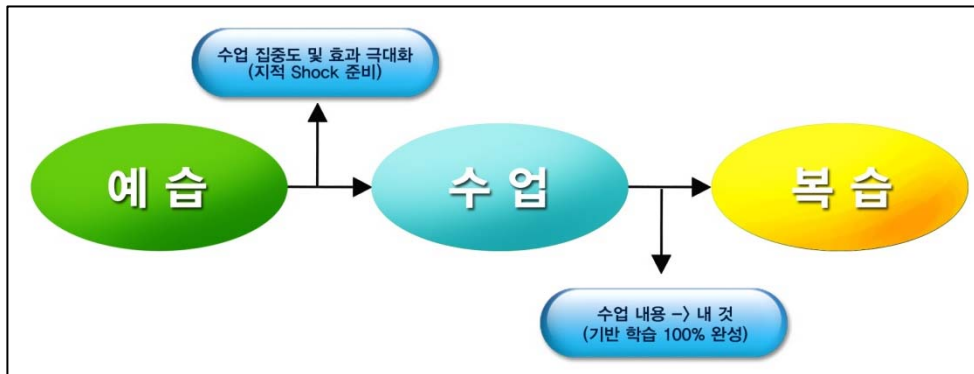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난 후에는 반드시 혼자서 수업 내용을 곱씹어보는 복습 시간을 가져야 한다. 수업 내용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이는 선생님의 스키마, 선생님의 근육일 뿐이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나의 스키마’와 연결하고 ‘나의 근육’을 직접 이용해 보는 복습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복습할 때에도 ‘수/사/과’, ‘언/외’에 따라 집중해야 할 포인트가 다르다. ‘수/사/과’의 경우 교과목 내용을 나의 스키마와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기본문제는 ‘발상/변형/조합’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분석해 봐야 한다.

‘언/외’의 경우 지문독해에 필요한 근육을 혼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근육점검’이 핵심이다. 수업 시간에 다룬 언어, 외국어 지식들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훑어보는 정도면 충분하다.

아래 그림은 평소 공부 중에서 ‘학교공부 : 연습-수업-복습 Cycle’을 정리한 그림이다. 연습, 수업, 복습할 때의 포인트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아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_ 연습-수업-복습 Cy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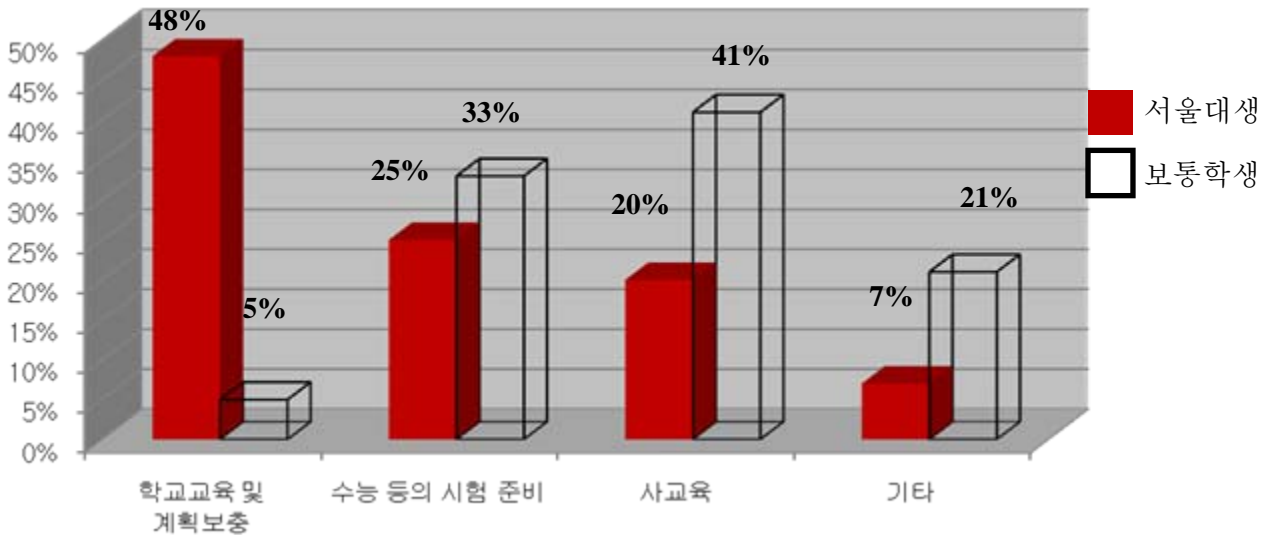


[Think Study 4(입시공부의 실용정의)] _ CODE

2) 나만의 공부

아래 그래프는 서울대생과 보통학생이 평소에 진행한 ‘나만의 공부’를 유형화한 자료이다. 서울대생의 경우 48%가 학교 공부에 대한 보충 그리고 그 외의 계획을 보충하기 위한 공부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_ 서울대생과 보통학생의 ‘나만의 공부’ 유형 통계]



평소에는 학교 공부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나만의 공부’도 함께해야 한다.

나만의 공부에는 과거에 진도 나간 학교 공부 중에서 이해가 미비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느린 학교 진도를 보충하기 위한 ‘학교 공부 보충분’이 있다. 나만의 공부 시간에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바로 ‘학교공부 부족분’이다. 언어독해, 영어 해석 및 듣기 그리고 수학 문제집 별도 풀이 등 기반학습에 포함되지만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는 ‘학교공부 부족분’이 있다.